

'손흥민 매직' LAFC 플레이오프 진출

우승 후보로 급부상, 29일 오스틴FC와 첫 경기

2025년 MLS컵 플레이오프가 막을 올리며, 손흥민과 데니스 부앙가의 투톱 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부 콘퍼런스 3위 LAFC는 29일 오후 7시30분 홈구장 BMO 스타디움에서 6위 오스틴 FC와 3전 2선승제 방식의 1라운드 첫 경기를 치른다.

이번 시리즈의 승자는 11월 22-23일 열리는 서부 콘퍼런스 준결승에서 밴쿠버 화이트캡스(2위)와 FC 달러스(7위) 중 승자와 맞붙게 된다. 1라운드는 총 세 경기를 치르며, 각 팀은 29일 1차전, 11월 2일 2차전, 필요할 경우 11월 8일 3차전을 치른다.

90분 정규시간 후 무승부일 경우 연장전 없이 승부차기로 승패를 가린다.

■ 손흥민 합류로 공격력 극대화

LAFC는 정규시즌에서 17승 9무 8패(승점 60점)를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3위로 마감하며 MLS컵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꼽힌다.



▲ 손흥민이 손으로 LA 표현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올해 8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에서 손흥민을 MLS 사상 최고 이적료에 영입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LAFC는 서부 콘퍼런스에서 승점 60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시즌 전적은 17승 9무 8패(총 34경기)로, 특히 정규시즌 후반부에 들어서 급격히 상승세를 탔다. 그 중심에는 여름 이적시장 기간에 잉글랜드 토트넘 홋스퍼에서 합류한 손흥민이 있었다. 손흥민은 MLS 데뷔 후 10경기에서 9골 3도움을 기록하며 완

벽히 적응했고, 부앙가와 함께 리그 최강 공격 듀오를 형성했다. 부앙가는 24골 9도움을 기록하며 '골든 부트 프리젠티브 바이 아우디'에서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다.

LAFC는 2022년 필라델피아 유니언을 꺾고 MLS컵을 들어 올렸으며, 2023년에는 콜럼버스 크루에 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이번 시즌은 최근 4년 중 세 번째 MLS컵 진출을 노린다.

■ 오스틴 FC: 투혼의 플레이오프 복귀

오스틴 FC는 정규시즌 13승 13무 8패(승점 47점)로 6위를 차지하며 1년 만에 플레이오프 무대에 복귀했다.

올 시즌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니코 에스테베스 감독 체제 아래 팀은 전년 대비 5점 향상된 성적을 거뒀다.

팀의 주포인 브랜던 바스케스가 7월 초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절반을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언 울프가 7골 8도움으로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중심을 잡았다. 또 다른 핵심 전력으로는 공격수 미르토 우주니(6골 3도움)와 오스만 부카리(3골 7도움)가 있다. 수문장 브래드 스투버는 올 시즌 9차례 무실점 경기를 기록하며 커리어 최고 시즌을 보냈다. 2021년 창단 이후 오스틴 수비진의 중심을 지켜온 그는 이번에도 팀의 마지막 보루로 활약이 기대된다.

베컴처럼, 손흥민 일시 유럽 복귀 검토

이적 전문 매체 트랜스퍼피드에 따르면, 손흥민은 MLS에서의 활약을 이어가면서도 데이비드 베컴의 선례를 따라 일시적으로 유럽으로 복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베컴은 2007년 LA갤럭시에 입단한 뒤, 2009년 AC밀란으로 임대되어 유럽 무대에 복귀한 바 있다. 그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 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AC밀란으로 돌아갔다.

손흥민 역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대비해 유럽 리그에서 경쟁 감각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2026년 초 유럽 클럽에 합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AC밀란이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만약 손흥민이 AC밀란으로 이적한다면, 임대 기간은 내년 초부터 시작해 2026년 MLS 시즌 개막 전인 3월 전후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손흥민은 MLS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이어가면서도 유럽 무대에서 다시 한 번 경쟁력을 다지는 이례적인 '이중 루트'를 밟게 될 전망이다.

NBA 전현직 선수 경기 조작, 불법 도박 적발

마이애미 히트 로지어 등 30여명, 내부 정보 이용 베팅

프로농구(NBA) 전·현직 선수들이 대규모 스포츠 경기 조작과 불법 도박 사기에 연루된 사건이 적발됐다. 범죄 규모는 수천만 달러에 달하며, 현재까지 11개 주에서 30여 명이 체포됐다.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뉴욕경찰청(NYPD)은 23일 뉴욕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체포된 인물 가운데는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의 현시 빌립스 감독,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서 선수와 코치로 활동했던 데이먼 존스, 마이애미 히트의 현역 선수 테리 로지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NBA 내부 정보를 이용해 스포츠 베팅에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 선수가 경기 출전 여부나 부상·질병으로 인한 조기 퇴장을 미리 알고 그 정보에 따라 개인 성적에 베팅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베팅은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카지노를 통해 이뤄졌다.

빌립스 감독과 존스 전 코치는 이와 별도로 전국 각지에서 이탈리아계 범죄 조직이 주도한 사기 도박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라스베이거스, 마이애미, 맨해튼 등지에서 유명 인사와 전직 선수들이 참여하는 '페이스 카드' 게임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는 혐의다.

이들은 카드 셔플링 기계를 조작하거나 특수 콘택트렌즈, 엑스레이 안경 등을 사용해 상대방의 패를 읽고, 무선통신기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게임에서 승리하는 수법을 썼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수년에 걸친 수사 끝에 수천만 달러 규모의 사기, 절도, 강도 범죄 조직을 밝혀냈다"며 "현재도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PREMIER TAX GROUP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JUNGHON KIM
E.9923003@gmail.com
C.714.335.8256
카톡 ID: Junghoon123

프리미어 텍스 그룹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